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EARTHQUAKE BIRD
가제 : 지진과 새
저자 : Susanna Jones
출판사: Mysterious Press
발행일: 2001년 9월 17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범죄미스터리소설

* '올드보이' '아가씨'의 촬영감독이자 헐리우드에 진출한 정정훈 촬영감독 영화화 진행중!
  알리시아 비칸데르(Alicia Amanda Vikande) 주연
* 영국 범죄소설가협회 존 크리시 신인상 (CWA John Creasey New Blood Dagger), 존 르웰린 라이스 상(John Llewellyn Rhys Prize) 수상작
* "눈을 뗄 수 없고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이야기. 섬세하게 잘 짜인 이 데뷔소설은 마지막 쪽을 넘긴 후에도 오랫동안 전율하게 할 것이다." - 「옵저버」

일본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영국 여성 루시. 회사에서 지루한 문서를 번역하면서 과거와 단절하고 철저히 낯선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그녀가 어느 날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체포된다. 토막 사체로 발견된 희생자는 루시처럼 영국 출신인 릴리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루시는 왜 모국을 떠나왔는지, 일본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녀의 과거와 일본에서의 삶이 자세히 펼쳐질수록 어딘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 둘 나타난다. 루시의 주변에서 불운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라는 것, 일본에서 만난 미스터리한 남자 테이지, 그리고 테이지와 릴리의 관계가 뒤엉키는 가운데, 이 모든 이야기를 뒤엎는 충격적인 반전이 마지막을 장식한다.

서른네 살의 루시는 요크셔에서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 위로 오빠들만 줄줄이 낳고도 아들을 기대했던 엄마는 딸아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루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어린 루시는 철저히 외면당한 채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문제는 오빠들도 엄마의 태도를 그대로 본받아 틈만 나면 루시를 잔인하게 괴롭혀댔다는 것이다. 영특해서 공부는 잘했지만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루시는 어디서도 마음 편히 지낼 곳을 찾지 못한다. 대학 입학을 계기로 영원히 집을 떠나기로 한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일본으로 건너온 이후 루시는 영국에서의 삶은 잘라내듯 끊어냈다. 늘 외로웠던 그녀의 관심은 오직 음악과 언어였기에 일본에서 취미 일요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참여하고 번역가로 일하며 나름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갔다. 비 내리는 신주쿠 거리를 거닐던 어느 날, 루시는 우연히 테이지라는 남자와 만난다. 취미로 사진을 찍는 그가 우연히 그녀에게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게 되고, 그에게 맹렬히 빠져든 루시는 지극히 제한적이던 인간관계를 더욱 좁혀 오직 그와의 관계에만 몰두한다. 테이지는 낮이면 삼촌이 운영하는 라면 가게에서 일하면서 퇴근 후에는 늘 카메라를 끼고 그 열정을 쏟아내곤 했다.

일과 사랑에 빠져 있던 어느 날 루시는 치과에서 만난 밥이라는 미국인을 통해 릴리 브리지와 만나게 된다. 일본에 완전히 정착한 루시와 달리 이제 막 도쿄에 와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주라는 그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다. 그러나 릴리와의 만남은 루시에게 비극의 시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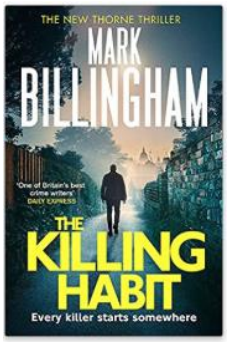
릴리가 자신과 같은 고향인 요크셔 출신임을 알게 된 루시는 자연스레 튀어나오는 그곳 이야기에 몸서리를 친다. 완전히 잊고 싶었던 기억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릴리가 너무나 불편하고 싫기만 하던 루시의 마음은 함께 등산을 다녀온 것을 계기로 크게 누그러진다. 산에 오르다 발을 삐끗했을 때 간호사 출신인 릴리가 차분하게 돌봐주는 것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던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가까워지던 두 사람의 관계는 테이지가 릴리와 가까워지면서 삐걱대기 시작한다. 여기에 영국에서의 불안정했던 시간들, 자신이 실수로 친오빠 중 한 명을 죽인 일 등 한 번도 남에게 말해본 적 없는 어두운 기억들을 루시가 테이지에게 조금씩 털어 놓은 뒤부터 테이지는 받아들이기 힘든 루시의 이야기에 당혹스러워하고, 탄탄했던 연인 관계에 미세한 금이 생기기 시작한다. 결국 테이지와 릴리가 점차 가까워져 연인이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루시는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게 된다. 릴리의 사체로 추정되는 토막이 발견된 후, 루시가 가장 먼저 용의자로 지목된 건 이런 뚜렷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정말로 루시가 릴리를 죽였을까?

루시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루시를 지켜본 나츠코, 루시와 함께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던 아이데와 카토, 그리고 이들과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야마모토까지, 루시가 주변 인물들과 나누는 이야기와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는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엇갈리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테이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루시는 경찰을 통해 그의 정체를 알게 되고, 조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토막 사체는 릴리가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 그러나 릴리는 루시의 집과 가까운 어느 폐가에서 목이 졸린 채로 발견되고, 누군가가 찍은 사진 두 장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하는, 흡입력 있는 미스터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수잔나 존스(Susanna Jones)는 요크셔에서 태어나 런던 대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했다.

제목 : THE KILLING HABIT
가제 : 살해 습관
저자 : Mark Billingham
출판사: Little, Brown
발행일: 2018년 6월 14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탐정/미스터리소설



*** 독일 판권 계약 체결 / 현재까지의 출간작들이 5백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작**
*** "획기적인 소설. 흡입력 있고, 범죄 소설이지만 선정적이지 않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다" - 「선데이 타임스」**
*** 살인사건 전담반 소속 형사, 톰 손의 활약을 그린 영국의 인기 스릴러 시리즈 - 한적한 주택가에서 고양이 사체가 갑자기 늘어난 사건을 시작으로 잔혹한 살인범을 막으려는 손 형사와 범인의 치열한 싸움을 그린 신작, 태너 형사의 도움으로 흥미 두 배!**

상관인 브릭스톡 경감이 고양이가 죽어나가는 이상한 일을 조사해보라고 할 때만 해도 손 형사는 우스갯소리인줄 알았다. 10주 동안 열다섯 마리 이상이 자연사가 아닌, 누가 봐도 처참하게 죽은 사체로 발견된 것은 물론 여러 사람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준 일이겠지만 그걸 살인사건 전담반이 왜 들여다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론 아주 오래 전부터 연쇄살인이 일어나기 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진 기괴한 현상에 대해서는 손 형사도 잘 알고 있었다. 60년대 초반에 미국의 한 정신의학자가 분석한 결과 개나 고양이, 새 여러 마리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할 때, 다섯 살 넘은 아이가 계속 자다가 오줌을 쌀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방화가 빈번할 때 살인의 전조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 형사의 이런 회의적인 반응은 브릭스톡 경감이 건넨 사건 파일을 여는 순간 싹 사라졌다. 사진에 나온 고양이 사체의 형태는, 그저 전조 수준이 아니었다. 분명 동일범으로 보이는 이 비정상적인 동물 학대범이 표적을 사람으로 바꾼다면, 런던은 지옥으로 변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온갖 살인범들의 소행을 두 눈으로 목격해온 손 형사의 직감은 고양이들을 난도질한 범인이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경찰 고문으로 일하는 정신의학자 멜린다 페레라 박사의 의견도 손 형사의 직감과 일치했다. 범인의 행동 패턴에서,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열을 식히고 있는 살인자의 특징이 뚜렷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그가 표적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한편, 니콜라 태너 형사는 미제사건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서로 일하다가 은퇴한 패트리샤 서머스비, 브리스톨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 아네트 맨건, 노르웨이 출신의 의사 레일라 파델. 이 세 명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범인을 찾는 것이 태너 형사가 맡은 일이었다. 이 세 명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영안실에 누워 있는 앨리스 매튜스라는 여성의 사인도 이들과 연관성이 있어 보였지만 확실한 단서는 잡을 수가 없었다. 손 형사와 함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이 희생자들의 공통점을 쫓던 태너 형사는 이들이 온라인 데이트 알선 사이트를 통해 한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한다. '고양이 작전'이라 이름 붙인 고양이 살해 사건과 미해결 연쇄살인 사이에 연결되는 부분을 발견한 두 형사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느 마약 중독자의 살인에서도 공통분모를 찾아낸다. 용의선상에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어린 소년의 목숨을 앗아간 앤드류 에반스라는 남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총을 휘두른 마약 중독자 안댄 잔달리가 오른다. 대체 이 혼란스러운 사건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추적을 거듭하던 니콜라 형사는 '공작부인'이라 불리는, 미스터리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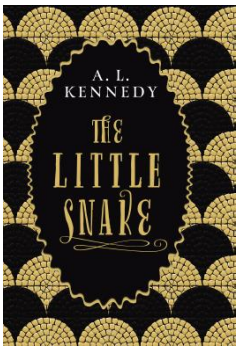
아직 두 살도 안 된 어린 아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앤드류 에반스가 본격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된 건 가족들, 친구들로 북적이던 집들이 파티에서부터였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손님들 틈에,'공작부인'이 나타난 것이다. 아내는 물론 그 누구도 자신이 이 정체 불명의 여자와 나눈 거래를 모르는데 떡 하니 집 한 가운데 나타나 샴페인을 홀짝이는 모습을 발견한 앤드류는 피가 마르는 공포를 느낀다. 공작 부인은 여유만만한 태도로 앤드류에게 다가와, 그가 빌려간 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자부터 내줄 것을 요구한다. 앤드류가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마약까지 손수 건네고 간 이후, 앤드류는 공작부인의 일당들로부터 그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듣고 총까지 건네 받는다. 이들과 거래를 한 이상,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그 요구가 살인이 될지언정 앤드류는 피할 길이 없었다.

태너 형사는 안댄 잔달리의 살인도 에반스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임을 발견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리한 증거만 가득해 진범은 더욱 철저히 가려진 상태다. 마약에 굴복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더 끔찍한 살인과 범죄를 기획하는 자는 누구일까? 공작부인과 범인의 관계는? 마약 조직 속을 점점 더 깊이 파고들던 태너 형사는 결국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손 형사는 실패한 작전을 딛고 이들을 잡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계획한다.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범인을 천천히 옭아매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살인사건 전담 톰 손 형사와 전작에서 살인 사건 조사에 큰 몫을 담당한 니콜라 태너 형사가 파트너를 이루어 재미를 더한다. 나아가 서로 별개로 보였던 두 사건의 접점을 찾아 끔찍한 살인을 차단하기 위해 얽히고설킨 범죄 네트워크를 헤집는 과정이 작가 특유의 세밀함과 탄탄한 스토리라인으로 그려진다.

<저자 소개>

마크 빌링엄(Mark Billingham)은 영국 최고의 범죄소설 상으로 꼽히는 틱스톤 올드 피큘리어 올해의 소설 상(Theakston's Old Peculier Award)을 두 차례 수상하고 셜록 상(Sherlock Award)도 수상한 베스트셀러 작가다. 『Sleepyhead』, 『Die of Shame』, 『Time of Death』 등을 발표했으며 『Sleepyhead』와 『Scaredy Cat』은 스카이 1(Sky 1) 채널에서, 『In the Dark』와 『Time of Death』는 BBC에서 TV 시리즈로 제작됐다.



제목 : THE LITTLE SNAKE
가제 : 작은 뱀
저자 : A.L. Kennedy
출판사: Canongate Books
발행일: 2018년 11월 8일
분량 : 144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우화

***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이탈리아어 번역 계약 체결 / 2016년 독일 출간**
*** "놀랍도록 실험적이면서도 너무나 아름답고 읽기 편한 소설을 쓰는, 거의 유일무이한 소설가. 날카로운 관찰력과 유머 감각도 작가의 글에 한 몫을 한다." - 「이브닝 스탠다드」**

장미꽃 만발한 정원과 하늘에 두둥실 떠오른 각양각색의 연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멋진 도시에서 특별한 우정이 피어난다. 외동딸로 늘 혼자 놀던 소녀 메리와 도시 곳곳을 누비는 작은 뱀, 란모는 메리가 사는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서 처음 서로를 발견했다. 작은 테이블보 크기밖에 안 되는 정원을 좋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옥상에 올라오는 메리와 어떤 책에도 사진이나 그림이 나와 있지 않은 특별한 뱀은 마치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만나자마자 급속히 가까워진다. 서로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된 둘은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었지만 서서히 도시를 집어 삼킨 전쟁의 그림자는 어쩔 수 없는 이별을 재촉한다. 이야기는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두 친구의 순수한 우정을 통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독특한 시선으로 그려낸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들, 소소한 일상이 선물하는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이들, 극심한 고통을 딛고 또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회복력 등 사는 곳, 사는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를 영리한 소녀와 뱀의 시선에서 따라가는 특별한 우화다.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좀 더 마른 체형이던 메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것을 좋아했다. 집에도 함께 놀 수 있는 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엄마 아빠와 메리 셋이서만 살기에도 비좁은 집에 또 한 명이 늘어나면 생활이 무척이나 불편해진다는 것도 잘 아는 똑똑한 아이였다. 메리가 사는 다세대 건물은 하루 건너 한 번씩 수도관에 물이 새고 창문은 너무 작아서 하늘을 보려면 좁은 옥상에 올라와야 했다. 메리는 늘 옥상에 올라와서 하늘과 주변을 둘러싼 높은 고층건물들을 둘러보곤 했다.

커다란 마당과 수영장이 딸린 근사한 집들, 심지어 악어나 이구아나까지 애완용으로 기를 만큼 거대한 집들을 볼 때마다 메리의 두 눈이 서글퍼진다는 것을 알아챈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작고 가느다란 뱀이었다. 메리는 옥상에 올 때마다 가장자리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는 작은 정원에서 처음 뱀을 보았을 때 아주 예쁜 팔찌인줄만 알았다. 그런데 알록달록한 팔찌가 갑자기 풀에서 모습을 드러내더니 쏜살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고개를 바짝 든 채 메리를 쳐다보며 혀를 날름거렸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메리가 뱀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런 메리에게

놀란 뱀이 의아해서 "왜 너는 놀라지 않니?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러던데"라고 묻고, 메리는 "내가 그랬으면 좋겠니?"라고 되묻는다. 란모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뱀과 무엇이든 찬찬히 살펴보고 바라볼 줄 아는 메리의 우정은 이렇게 시작됐다. 란모는 메리에게 날카로운 이빨을 보여주고, 이 이빨로 널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메리가 밤늦게 잠이 들 때면 악몽을 꾸지 않도록 란모가 지켜주고, 메리는 란모가 배고프다고 하면 치즈와 빵을 가져다 나눠주곤 하면서 둘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그리워할 만큼 부쩍 가까워진다. 그렇게 메리와 란모는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다. 몸도 마음도 함께 커버린 메리와 란모는 늘 멈춰 있을 것만 같았던 도시에 조금씩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를 인지한다. 급기야 공중에서 폭탄이 떨어져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다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고 전쟁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비극이 찾아온다. 결국 메리와 가족들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난길에 오르기로 하고, 란모와 작별 인사를 고한다.

항상 란모가 먼저 찾아와야 만날 수 있는 메리는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고 글도 읽을 줄 아는 란모에게 편지를 남기고 언제, 어디서 끝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여행을 시작한다. 이미 다 큰 여성이 된 메리는 폴이라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폴과 부모님까지 네 사람은 쉬지 않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밤이면 우거진 풀숲에 들어가 나무 위에서 눈을 부치거나 폭격에 무너진 집들에 숨어버려진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메리가 어딘지도 모를 풀숲에 앉아 있을 때 거짓말처럼 란모가 나타난다. 란모에게는 공기 중에 혀만 내밀면 사람마다의 고유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메리가 남긴 편지를 보고 서둘러 따라온 것이다. 반가운 인사도 잠시, 란모는 메리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3일 밤낮을 함께 걷던 부모님이 4일째가 되자 등에 지고 온 식량을 전부 남겨둔 채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걸음이 느린 자신들 때문에 폴과 메리까지 뒤쳐지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던 두 분은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아 결국 두 사람만 떠나왔다고 했다. 메리는 란모에게 부모님의 냄새가 느껴지느냐고 묻지만, 란모는 혀를 아무리 내밀어봐도 두 분의 냄새가 한 조각도 감지되지 않는다. 두 친구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낸다.

수호천사처럼 두 사람의 피난길을 보호하고 뱀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가야 할 길을 일러준 란모 덕분에 메리는 폴과 함께 무사히 안전한 지역에 도착한다. 원래 살던 곳과 쓰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메리는 폴과 가정을 꾸리고 정착한다. 보석 디자이너가 된 메리는 맨 처음 란모를 만났을 때 느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보석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고, 란모는 자신만의 삶으로 돌아간다. 처음 메리와 친구가 될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이별 끝에 다시 만난 두 친구는 아주 이상하고 알쏭달쏭한 마지막을 함께 맞이한다. 사랑과 가족, 전쟁,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그린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우화다.

<저자 소개>

A.L. 케네디(A.L. Kennedy)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다. 모교인 워릭 대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글쓰기를 가르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랜타(Granta) 선정 '영국 최우수 젊은 소설가'로 두 차례 선정됐다. 저서로는 『Serious Sweet』, 『The Blue Book』, 등이 있다.

제목 : THE PERFECT GIRL
가제 : 완벽한 아이
저자 : Gilly Macmillan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6년 9월 6일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심리스릴러소설

*** "능수능란하게 그려진 인물들, 정교한 줄거리로 구성된 놀라운 범죄 소설" - 북리스트**
*** "고도의 기교가 돋보이는 스토리와 인물에 빠져들게 된다. 『걸 온 더 트레인』의 팬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소설" - 작가 로저먼드 럽튼(Rosamund Lupton)**

흠 하나 없이 완벽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모녀가 마침내 그 꿈에 성큼 다가섰다고 느낀 순간, 죽음이라는 가장 예상치 못했던 결말이 찾아온다. 피아노 영재 조와 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엄마 마리아는 3년 전, 비극적인 사건으로 바닥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잡는다. 조 못지 않게 어릴 때부터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로 알려진 아들인 루카스를 혼자 키우던 크리스와 마리아가 재혼을 한 것이다. 이들의 만남은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퍼즐조각이 완성되듯 완벽한 결합으로 여겨졌다.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기라도 하듯 부부가 된 마리아와 크리스는 조와 루카스의 합동 연주회를 준비하고, 네 사람의 완벽한 새 인생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이 행사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그러나 연주회 당일, 순탄하게 시작된 첫 곡이 다 끝나기도 전에 공연은 중단되고 그로부터 6시간 후 마리아는 죽은 채로 발견된다. 갑작스러운 일로 보이는 그녀의 죽음은 사실 마리아와 조가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었던 3년 전 사고의 여파, 그리고 모녀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크리스와 루카스의 과거가 한꺼번에 터진 결과였다. 대체 이들 각자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

마리아의 첫 남편이자 조의 친아버지인 필립은 부모님께 물려 받은 시골 농장을 가진 순박한 사람이었다. 스물두 살 어린 나이에 필립의 아내가 된 마리아는 결혼 직후 태어난 조가 세 살 무렵부터 음악에 남다른 소질을 보이자 눈이 번쩍 뜨였다. 마리아도 어릴 때 음악적인 재능이 남달랐지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도달하지 못했고, 공부도 썩 잘 하지 못해서 그 재능도 제대로 키우지는 못했다. 그러나 어린 딸이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재능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발산하는 이상, 최대한 뒷바라지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마리아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엄마의 성화에 힘입어 조의 피아노 연주는 나날이 발전했지만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다. 자그마한 체구에 금발 머리, 커다란 두 눈을 가진 조의 아름다운 외모는 또래 친구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아닌 놀림감과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고 똘똘 뭉쳐 작정하고 놀려대는 못된 아이들이 끊이지 않으며 조와 가까이 지내려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따돌림의 고통에 매일 몸서리치던 어느 날, 조는 의도치 않게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고로 조를 괴롭히던 학교 친구 세 명이 목숨을 잃고, 조

는 열네 살 어린 나이에 살인범으로 기소를 당한다. 마리아가 받은 충격은 실로 엄청났다. 이 일로 조의 부모는 결국 이혼을 택한다.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은 조가 아동 범죄자 수감 시설에서 지내는 사이, 마리아는 자수성가한 기업가 크리스 케네디와 만나고, 그도 피아노 영재인 아들 루카스를 키운다는 사실에 더욱 친근감을 느낀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 확신한 마리아와 크리스는 재혼을 결심하고, 조가 마침내 수감 시설에서 벗어났을 때는 두 사람 사이에서 꼬물대는 갓난아기까지 태어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완성된다. 문제는 새로 가족이 된 크리스와 루카스는 조와 마리아의 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리아는 인생 초반에 동급생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린,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을 겪고 의기소침해진 조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재혼을 삶을 재정비할 절호의 기회라고 딸을 설득한다.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조는 자신이 없었지만, 엄마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사고 이전부터 전혀 변하지 않은 딱 한 가지, 자신의 피아노 실력 하나만 믿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보기로 한다. 그런데 마리아가 살해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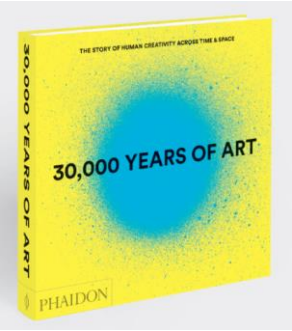
조가 루카스와 함께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한창 첫 곡을 연주하고 있을 때 객석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몇 년 전, 조가 일으킨 사고로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공연장 한복판에 우뚝 서서 조와 마리아를 향해 위선자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때만 해도 완벽해야 할 연주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 사건이 더 끔찍한 사고의 전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6시간 뒤, 마리아는 집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죽은 채로 발견된다. 조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 처음 만났던 변호사인 샘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엄마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밝히기로 한다. 마리아의 언니이자 변호사 샘과 부적절한 연인 관계가 된 테사와 테사의 남편 리처드, 크리스, 그리고 조와 샘의 시선이 짤막한 각 장마다 계속해서 바뀌고, 여러 등장인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듯한 마리아와 조의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 평소 취미로 사진과 영상 촬영에 심취한 크리스가 습관처럼 기록한 녹음과 비디오 영상에 마리아의 죽음을 둘러싼 중대한 증거가 남고, 이야기가 전개될 수록 루카스의 친모이자 크리스의 전처, 줄리아의 죽음에 얽힌 무서운 진실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크리스는 어떤 사람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실이 숨막히게 여러 사람의 시선을 통해 한 꺼풀씩 드러나는 과정이 긴장감 넘치게 묘사된 흥미진진한 심리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길리 맥밀란(Gilly Macmillan)은 예술사를 공부하고 멀링턴 매거진, 헤이워드 갤러리에서 일했다. 현재는 전업 작가로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국제 스릴러작가 협회가 수여하는 '스릴러 상(Thriller Award)' 최종 결승에 오른「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What She Knew』가 있다.

NON-FICTION



제목 : 30,000 YEARS OF ART
가제 : 3만 년 동안의 예술
저자 : Phaidon Editors
출판사: Phaidon Press
발행일: 2015년 9월 18일
분량 : 656 페이지
장르 : 예술

* "커피 테이블에 올려놔도 될 만한 명작 박물관" - NPR
* "예술 애호가, 문화 인류학자, 일반인 모두가 소중하게 여길 만한 책" - 「퍼블리셔스 위클리」
* "1,000 장의 멋진 일러스트를 보다 보면, 아주 박학다식한 독자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선데이 텔레그라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꼭 들르는 곳이 박물관과 미술관이다. 세계적인 작품을 실제로 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한정된 시간에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제대로, 가장 알차게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가이드 투어를 하든, 사전에 철저히 공부를 하고 가든 방대한 양의 유물과 작품들 속을 헤매다 보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기 마련이다. 이 책은 기원전 3만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출토되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유물과 예술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여러 나라와 문화권, 문명 사회에서 나온 명작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예술과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들은 물론 깊이 있는 지식이 없어도 관심이 많은 일반인 모두가 체계적으로 문화와 예술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순수 예술과 장식 예술 분야를 총망라하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표적인 작품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품까지, 600 종이 넘는 다양한 형태, 소재, 용도의 결과물을 생생한 컬러 사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회화, 조각, 직물, 금속, 세라믹 등 다채로운 재료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박물관 큐레이터와 학자, 고고학자 등 서른다섯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선정하고 직접 쓴 설명과 함께 연대순으로 제시된다. 각 작품과 유물에 관한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왜 이 한 점의 작품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지 밝힌 전문가적 통찰이 함께 담겨 있어서 더욱 유익하다.

기원전 3만 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 벽화를 시작으로, 작품마다 그것이 만들어진 지역과 문화권의 특징을 대표하는 특징이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책은 크게 두 종류의 타임라인으로 구성된다. 한 가지는 메소포타미아,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아나톨리아와 지중해 동부 지역, 이집트와 아프리카, 유럽, 북미 대륙,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일본,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총 13곳의 문화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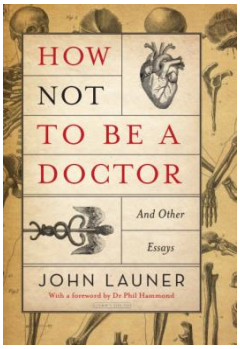
나타난 변화를 정리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28 페이지에 걸쳐 시대순으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상징적인 변화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대표적인 작품과 함께 예술사의 측면에서 어떤 작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에서 밀로의 비너스 상이 만들어진 시기에 일본과 이라크, 페루, 나이지리아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탄생했는지, 벨라스케즈가 <시녀들>을 그릴 때 인도의 어느 무명 예술가가 옥을 정교하게 다듬어 타지마할을 세운 왕을 위해 만든 술잔은 어떤 모습인지 책장을 넘기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유구한 역사를 거쳐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예술의 형성, 발전, 변화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예술 작품
연대기
용어 설명

<저자 소개>

파이돈 에디터스(Phaidon Editors)는 큐레이터, 비평가, 예술가, 학자 등 폭넓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작품을 종합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



제목: HOW NOT TO BE A DOCTOR

가제: 진짜 의사

저자: John Launer

출판사: Duckworth Overlook

발행일: 2018년 6월 14일

분량: 304 페이지

장르: 에세이

*** "위트와 지혜가 담긴 책. 의사가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 『Emergency Admissions』의 저자, 킷 워튼**

만성 질환으로 병원을 수시로 드나드는 환자들이나, 어쩌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 사람들 모두 대부분은 진료실에서 묘한 위압감과 불편함을 느낀다. 의사가 특별히 불친절하거나 싸늘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묻는 말에 우물쭈물 답하거나 요약해서 얼버무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말을 듣는 의사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남의 말을 안 듣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의사"라고 이 점을 콕 찍어 이야기하는 저자는 수십 년간 의사로 직접 환자들과 만난 경험과, 자신의 고질적인 습진 때문에 환자로 치료를 받은 경험을 종합하여 의사라는 직업이 환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고민과 통찰을 이 책에 담았다. 「영국 의학저널」을 비롯한 국제적인 학술지에 저자가 수년간 기고한 50편 이상의 에세이를 종합한 이 책은 의사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방식이나 동료 의사들이 하는 방식을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대신, 인간 대 인간으로 환자 개개인을 대하고 자신의 직관을 믿을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머릿속에 채워 넣은 지식과 정보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쌓은 경험과 관심사, 의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면을 끌어 모아 인간 대 인간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 이것이 통상적인 의학교육이 가르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를지언정 의사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길임을 다양한 사례와 경험, 이야기를 토대로 설명한다.

저자는 카이로 행 열차에서 열살 소년이 맹장염을 앓고 자신이 유일한 의사라 응급 수술을 해야만 했을 때 겪은 일들을 비롯해 치료가 사람을 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업무'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함을 개의치 않게 되는 의사들의 의도치 않은 불친절함과 불필요한 강요 방식을 있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또한 의학계에서 금기시되는 주제들, 가령 실제로 남성은 진화적 측면에서 뒤떨어진 존재인지, 의사가 환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근접한 거리로 다가가 접촉이 일어날 때 성적인 욕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가에 관한 고민도 함께 털어 놓는다. 대단한 분야의 권위자라는 타이틀을 떼어내고 지구상의 무수한 직업 중에 하나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커튼 뒤에 가려진 의사들의 일상을 속속들이 보여주고 현대 사회에서 의료계의 환경이 의사와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실적으로 분석한다. 의대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을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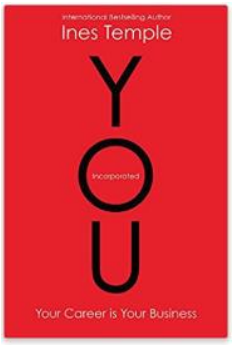
한 내용과 함께 선사시대 의사들과 현대 의사들이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상상한 재미 있는 내용들, 의사가 가벼운 병부터 불치병까지 병을 앓으면서 환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환자의 입장 등 다각도로 바라본 의사라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유머를 담아 흥미롭게 전한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임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유익한 이야기와 정보가 알차게 담긴 책이다.

<목차>

서문 / 머리말
1. 의사가 안 되는 법
2. 스트레스 검사
3. 많은 것이 변할수록
4. 현대 의학
5. 이름이 무슨 문제인가
6. 잘못 입은 바지
7. 근접하는 순간
8. 지나가는 말
9. 다 그리스어로만 들릴 때
10. 애나 오, 그리고 '대화 치료'
11. 신속히 전파되는 이야기
12. 전부 몸에 나타난다
(이하 생략, 총 54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존 로너(John Launer)는 의사이자 의학 교육자, 저술가로 활동해 왔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영문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의학 공부를 시작해 1983년 영국 왕립 의사협회 회원이 되었다. 30년 이상 「타임」지, 「데일리 메일」 등 대중 매체와 학술지에 칼럼과 기고문을 꾸준히 써 왔다. 저서로는 『Sex Versus Survival: The Life and Ideas of Sabina Spielrein』(2015)이 있다.



제목 : YOU, Incorporated
가제 : '나'라는 회사
저자 : Ines Temple
출판사: Nicholas Brealey
발행일: 2018년 10월 30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스페인어로 먼저 출간되어 10만 부 이상 판매(15쇄)되며 화제가 된 책**
*** 구직자, 경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 커리어를 변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원칙**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부지런히 학점을 관리한 다음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그리고 그 회사에서 평생 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삶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 한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사상 유례없는 기술 발전과 변화로 산업 전체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계속 휩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도 더욱 빠르게,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가지 직업이나 직무만 고수한다면 성공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 기존에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도하려는 사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발전시켜 변화의 흐름에 잘 따라가고 싶은 사람 모두 직업 시장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한다. 1993년부터 경력 개발 분야에서 활약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평생 직업'의 개념이 옛 유물이 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접목시켜 성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회사 한 곳에서 평생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유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에 꼭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원하고, 기존 인력을 교육하거나 발전시키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아무런 발전이 없거나, 끊임없이 경쟁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을 안정적인 급여 하나로 모두 참아내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한 마디로 직장이 있어도 하고 싶은 일과 괴리가 클 경우, 혹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경우 다른 일을 찾고자 하고 과거와 달리 이를 꿈으로 남겨두지 않고 과감히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저자는 '이상적인 직업'의 의미도 크게 바뀌어 이제는 사회가 내건 잣대가 아닌 개개인이 그 직업에서 얻는 가치가 더 중시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구직자는 회사가 더욱 매력을 느끼는 존재가 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발전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선망하고 우러러보는 일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꼭 맞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기술, 이를 위해 구직자가 갖추어야 할

통찰과 실제 업무 현장에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지 각 챕터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회사와 구직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필수 요소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명확성'. '우수한 태도', 그리고 '접근 방식'이다. 첫 번째 명확성은 오늘날 고용 시장에서 계속 새롭게 구축되는 규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을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한다. 두 번째 '우수한 태도'는 개개인이 풍기는 전체적인 인상을 누구나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바꾸는 것으로 4장에서 다루어진다. 마지막 요소인 접근 방식은 구직이나 커리어 변경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시선을 바꾸는 것, 즉 자신을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1인 경영자로써 나라는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마케팅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내용은 5장에서 배울 수 있다.

지금 당장 돈 벌 수 있는 직업을 급하게 구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개인의 가치와 경쟁력을 키우고, 인정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직과 채용의 원칙을 소개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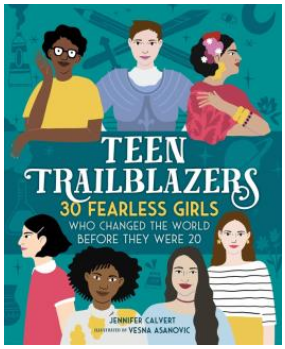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장.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바로 변화
2장. 취업 능력
3장. 경쟁력을 키워라
- 업무 기술 / 사회적인 기술 / 자신감의 표현
4장. '나'라는 회사
5장. 나를 마케팅하라
맺음말

<저자 소개>

아이네스 템플(Ines Temple)은 진로 변경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술가로 활동해 왔다. 페이스북 팔로워가 9만 5,000명, 트위터 팔로워가 2만 7,000명에 이를 정도로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여러 잡지와 신문, 간행물에 450 편이 넘는 글을 기고했다.

제목 : TEEN TRAILBLAZERS
가제 : 역사를 바꾼 십대 소녀들
저자 : Jennifer Calvert
출판사: Castle Point Books
발행일: 2018년 10월 2일
분량 : 128 페이지
장르 : 여성/전기/역사/페미니즘



*** 기발한 생각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꾼 서른 명의 소녀들 – 한 눈에 들어오는 컬러 일러스트와 함께 시대를 뛰어넘은 열정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소개한 색다른 전기**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왠지 엄청난 능력이나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역사를 되짚어보면 진짜 변화는 아주 서서히, 차곡차곡 쌓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완성된 경우가 훨씬 많다. 모두 깜짝 놀라 기겁할 만큼 어딘가에서 뚝딱 이루어져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부터 슬금슬금 시작된 움직임이 더 큰 움직임을 끌어내고 그것이 똘똘 뭉쳐 커다란 변화의 톱니바퀴를 돌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은 누군가의 용기 있는 행동, 과감한 결심일 때가 많다. 저자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자'라는 수식어와 어쩌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는 십대 청소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해낸 서른 명의 소녀들을 선정하여 이 책에서 소개한다.

흑인은 버스에서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여겨지던 시절에 따가운 시선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클로뎃 콜빈, 평소 좋아하던 책의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어서 영화 오디션을 보고 인기를 얻게 되자 전 세계 여성들을 돕는 일에 그 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엠마 왓슨은 어쩌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린 나이에도 뚝심과 흔들림 없는 주관으로 원하는 것, 올바른 것을 추구한 덕분에 더 큰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겨우 열두 살에 면직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발명한 마거릿 나이트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형태로 여러 경로를 통해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오늘날과 달리 여자는 무조건 얌전해야 하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태도가 최고로 여겨지던 시기에 누구도 용기내지 못했던 일을 처음으로 해낸 소녀들도 많다. 역사상 처음으로 공상과학 소설을 쓴 메리 셸리, 탐사 보도라는 장르를 개척한 넬리 블라이, 여성이 화가가 되려면 엄청난 욕을 먹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했던 시대에 초상화 화가로 대성공을 거두고, 열다섯 살에 독보적인 화풍을 확립해서 비난은커녕 작품을 의뢰하는 사람이 줄을 서게 만들었던 엘리자베스 루이 비제 르 브룅,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리그 선수가 되어 열일곱 살에 전설적인 야구 영웅 베이브 루스와 루 게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재키 미첼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저자는 이처럼 스무 살 생일을 맞이하기도 전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가능성조차 희박하다고 여겨진 일, 혹은 누구도 상상조차 못한 일을 해낸 패기 넘치는 십대 여성들의 놀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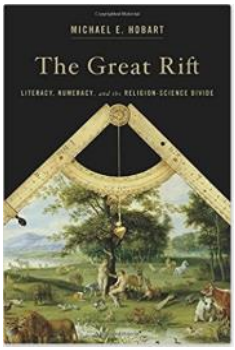
업적을 발랄한 색감이 돋보이는 컬러 일러스트와 함께 상세히 소개한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나 장소, 사회적으로 처한 현실은 제각기 달랐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변화를 일으킨 이들도 있지만 우연히 큰 변화의 시초가 된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누구보다 용기 있었다는 점, 희망을 잃지 않고 창의력과 굽히지 않는 의지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점은 모두의 공통점이다. 극심한 빈곤과 성차별, 인종차별, 전쟁과 같은 커다란 장벽을 이겨냈다는 사실도 이들의 공통분모다. 서른 명의 젊은 여성들이 일궈낸 성과는 누구나 그 뒤를 이을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타고난 영웅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내디딘 작은 걸음에 내포된 큰 가치를 강조한다.

<목차>

머리말
클레오파트라
잔다르크
포크혼타스
엘리자 루카스
필리스 휘틀리
엘리자베스 루이 비제 르 브룅
시빌 루딩턴
제인 오스틴
새커거위아
메리 셸리
아니타 가리발디
마거릿 나이트
(이하 생략, 총 서른 명의 인물로 구성)

<저자 소개>

제니퍼 칼버트(Jennifer Calvert)는 작가 겸 편집자, 열혈 책벌레로 살고 있다.



제목 : THE GREAT RIFT
가제 : 과학과 종교 사이의 거대한 틈
저자 : Michael Hobart
출판사: Harva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8년 4월 16일
분량 : 520 페이지
장르 : 인문

*** "과학의 역사에 탄탄한 보탬이 될 만한 책" - 「커커스 리뷰」**
*** "저자는 갈릴레오 시대부터 과학과 종교 사이에 발생한 균열을 혁신적으로 해석했다." - 『The Newton Wars』 의 저자 J. B. 쉔크**

현대 종교와 과학은 전혀 다른 분야로 보이지만, 진실의 추구라는 궁극적인 목적만 놓고 보면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절대 섞일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는데 주력하는 반면 과학은 숫자와 추상적인 기호를 사용한다. 언제부터 이런 극명한 차이가 생겼을까? 역사학자인 저자는 과학기술의 역사를 토대로 종교와 과학의 분리 과정을 분석한 책을 최초로 완성했다. 르네상스 시대 활동하던 상인들이 필요에 의해 개발한 실용적인 계산법과 음악가들이 사용하던 추상적 표기법, 예술가들이 채택한 선형 원근법,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만든 달력과 시계의 등장이 전체적인 산술 능력의 발전을 이끌고 '상대적 수리 감각'이라는 혁신적인 수학적 체계를 탄생시켰다. 저자는 언어 대신 숫자와 추상적인 기호를 이용하여 의미를 설명하고 만들어내는 방식이 탄생한 후 과학계가 언어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자연계를 기존과 전혀 다른 형태로 해석하기 시작한 과정을 추적한다.

현상과 사물을 계속해서 언어로 설명했다면 과학과 종교는 지금까지도 겹치는 부분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실제로 상대적 수리 감각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두 영역이 지금과 같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등장한 미적분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같은 수학은 과학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고, 신학에서는 과학이 택한 이 언어로는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 한 쪽은 언어로, 다른 한 쪽은 수학으로 구성된 정보기술이 구축되자 더 이상 서로간의 대화는 무의미하고 불가능한 일이 된 것이다.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 진화 이론가인 스티븐 제이 굴드에 이르는 인물들이 제시한 이론과 설명을 예로 들어 과학과 종교 사이에 더 이상 결합될 수 없는 틈이 점점 벌어진 과정을 분석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학자들은 무신론을 주장할 때 외에는 신학에 관심을 갖지 않고 신학자들도 우주가 신의 뜻으로 특별히 창조됐다는 점을 역설할 때 외에는 과학의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저자는 알파벳과 단순한 연산으로만 이루어졌던 기술이 추상적인 기호에 자리를 내어주고 현대 과학의 독보적인 탐구 방식이 정립된 초창기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과학이 종교가 택한 언어적 논리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새로운 증명 방식을 확보하기까지 이어진 변화를 따라간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 놓인 틈은 이데올로기적인 분리가 아니라 수학과 기호의 등장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이 엇갈리면서 생겨난 것임을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설명하고 21세기까지도 이어진 두 영역의 지적 논쟁은 훨씬 더 먼 과거에 뿌리가 있음을 밝힌 의미 있는 역사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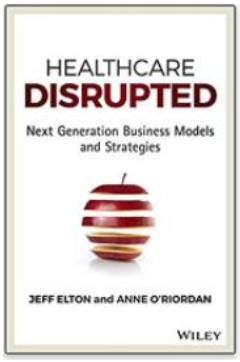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과학과 종교 사이의 틈
1부. 기도와 이론: 기질의 분류 - 종교와 과학
1. 말과 사물로 이루어진 세상
2. 증명 가능한 상식: 근세 과학
2부. "상상 수학"에서 분석의 한계까지 - 사물의 충만함, 공백 관계
3. 초창기 수리 감각과 수학의 분류
4. 사물-수학: 중세 4학(學)
5. 산술: 인도-아라비아 숫자와 상업의 발전
6. 음악: 시간을 조절하고 음을 조화시키다
7. 기하학: 원근법과 비율에 관한 환상
8. 천문학: 시간의 기술
3부. 갈릴레오와 분석적 기질 - 현대과학의 순간
9. 분석학의 탄생
10. 현상의 수학화
11. 증명과 이야기: 두 가지 진실에 관한 원칙
맺음말: 오늘날의 거대한 틈

<저자 소개>

마이클 호바트(Michael Hobart)는 브라이언트 대학교에 역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웨스턴 워싱턴 대학교 역사학과 겸임교수로도 임명됐다.

제목 : HEALTHCARE DISRUPTED
가제 : 보건 산업의 새 시대
저자 : Jeff Elton, Anne O'Riordan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6년 2월 23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의학/생명공학



* **"보건 산업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은 과학 발전과 환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두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 빌 앤 멜린다 게이트 재단, 글로벌 보건부문 대표 의학박사 트레버 문델**

세계 곳곳에서 인구 노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의료보건 비용이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도 함께 나타난다. 국민의 건강 수준이 국가의 경제와 생산력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노령화 시대에 더 도드라지는 현실이기에, 한 나라의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의료보건 정책과 산업을 확립해야 한다는 압박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의료보건 정책과 산업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해온 두 저자는, 변화가 큰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내에 전 세계 환자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치료의 결과가 모두 크게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단언한다. 각국의 협력, 나아가 전통적인 방식만 고수하지 않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개별 국가가 아닌 세계 전체의 의료 수준을 높이고 보다 현명한 진단을 하고 정보분석학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해야 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두 저자는 설명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책은 의학과 약학, 의료기기, 의료보건 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의 손에서 이미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다 확실하게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을 소개하고, 오랫동안 활용된 전통적인 정책이나 산업 모형 가운데 과감히 버려야 할 부분을 집어준다.

두 저자가 몸담고 있는 리서치 기관 '어센추어(Accenture)'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와 두 사람이 직접 발로 뛰면서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공학 업계야말로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 환자의 치료 효과를 최상으로 끌어 올리고 산업 전체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주인공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제 사회에서 나타난 보건분야의 변화 양상이 기존의 전략과 산업 모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밝히고, 과거의 리더들이 갖춰야 할 새로운 역량도 제시한다. 의료보건 분야와 관련된 모든 산업체가 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과를 얻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환자의 전자의료기록,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사물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와 같은 실제 데이터를 측정 가능한 기술, 분석기법과 결합하여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보건 산업 종사자의 책임감이 더욱 크고 넓어지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인구도 함께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의료관리 산업 전반에 휘몰아친 거대한 변화가 환자와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툴과 모형을 풍성하게 제시한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 과거, 현재, 앞으로의 잠재성 / 새로운 모델 / 붕괴, 그리고 책임 있는 재구성
1부. 변화의 쓰나미
1장. 보건 산업이 이토록 빠르게 변화한 이유와 과정
2장. 보건 업계가 피할 수 없는 전략적 선택
2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략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방법
3장. 낡은 모델과 새로운 모델
4장. 간소한 혁신
5장. 환자 중심의 혁신
6장. 가치 중심 혁신
7장. 보건 산업의 불어온 새로운 디지털의 바람
3부. 새로운 조직의 형성
8장.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모델
9장. 보건 분야의 새로운 생태계에 필요한 재능 전략
4부. 과거의 분석-미래의 예측
10장. 보건 산업의 새 시대 - 환자와 가치를 중심으로

<저자 소개>

제프 엘튼(Jeff Elton)은 리서치 업체 'Accenture Strategy'의 전무이사를 맡고 있다. 메사추세츠 생명과학위원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며 보스턴 대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 강의도 맡고 있다.

앤 오리오던(Anne O'Riordan)은 'Accenture Life Sciences'의 글로벌 산업 분야 선임 관리자를 맡고 있다. 중국과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을 돌면서 25년간 약학, 의학기술, 소비자 보건 관련 업체의 개선과 재편을 돕는 일을 해 왔다.